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특성과 정책 시사점

김 종 숙*

I. 서론

최근 빈곤정책의 주요 흐름이 일을 통하여 빈곤을 탈출하는 정책이라고 할 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집단의 정책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근로빈곤계층을 더욱 한계집단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 빈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빈곤층 중 왜 여성의 비중이 높은가, 여성과 근로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등의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 없이는 여성 근로빈곤의 결과만을 주목할 뿐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빈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사회적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여성의 근로빈곤에 대한 논의들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집단 중 여성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빈곤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가족내 자원배분과 분업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등 가족내 요인,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성차별, 사회보장제도의 여성 수급문제 등에 의하여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박영란 외, 2003).

빈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직접적으로 여성 근로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빈약한 원인은 빈곤과 여성이라는 측정단위의 불일치에 상당부분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jskim@kwdi.re.kr).

기인한다. 빈곤의 측정이 가구단위의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여성은 개인의 단위를 갖게 됨에 따라 빈곤한 가구와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여성빈곤의 문제는 가구단위에서 식별이 가능한 여성 가구주나 여성 노인가구 등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과 빈곤의 문제는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뿐 아니라 보편적인 남성가구주 빈곤가구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서도 가구내 자원분배의 공평성이 깨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 근로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의 근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질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소비사항을 측정하였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근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이 두 자료간의 단절성으로 인하여 근로와 빈곤의 사항을 동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1998년부터 조사된 한국노동패널(KLIPS)조사는 이 두 부문을 동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근로빈곤에 대한 전체 규모의 파악에 관심이 있었을 뿐 근로빈곤집단 내부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특히 성별로 분리된 기초통계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보다 심층적인 원인의 분석은 후속연구에 남기고자 하며 본고에서는 여성 근로빈곤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파악하여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 1) 제3세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구내 자원배분의 문제도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당 칼로리 섭취 등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문제들이 제3세계의 주요한 정책적 관심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가족내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양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남성과 남아에 대한 과도한 자원배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자원배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인 남성에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구성원의 복지가 증가한다기보다는 가구주 개인의 복지만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수단은 가구대표에게 지원하는 것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즉 동일한 가구내에서도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빈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II. 근로빈곤과 여성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 근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성 근로빈곤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개념에서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아닌 사회적·심리적 차원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UNDP의 인간빈곤지수에서는 건강한 삶, 지식, 적절한 생활수준, 사회적 배제의 네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빈곤을 측정하는데 보다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OECD국가들에게는 보다 상대적인 개념이 빈곤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여성빈곤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 박영란 외(2003)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 및 인간빈곤 개념을 통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빈곤의 원인이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의 성별 노동분업, 노동시장의 성차별, 분절성, 여성취업의 형태 등임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의 성별 노동분업은 근로를 유급노동에 한정시킴으로써 무급노동의 몰가치화 등을 초래하였다. 다수의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재생산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국의 복지정책이 근로와 연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보험의 가입 등 많은 사회안전망들이 유급노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노동인 재생산 관련 노동종사자들이 근로자에서 배제됨으로써 나타나는 빈곤화 및 사회안전망의 부재는 실질적으로 이들 집단을 더욱 한계집단화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매우 오래된 논의의 주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은 산술적으로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할 수 있는 여지가 여성에게 여전히 높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 저임금의 원인은 많은 역사가 있어왔으나 여성취업의 부가적인 측면, 가구내에서 주부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관습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분절성, 성별 직종분리 등은 여성집중 직종이 한계화되며, 따라서 이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을 볼 때 여성근로자의 비정규화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44.8%가 비정규근로자라는 데서 이미 진행될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비율인 31.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며 남성 비정

규근로자가 한시적 근로자 중심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매우 다양한 근로형태, 즉 비전형근로자의 비중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정규근로자는 고용불안뿐 아니라 근로조건에서도 정규근로자와 차별되기 때문에 여성이면서 비정규근로자인 집단은 이중적 차별로 인한 근로조건이 악화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빈곤화 가능성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근로와 연계된 복지제도내의 여성비중이 낮아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공적연금 수급자내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고 급여액도 여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연금가입자의 실태를 보아도 남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부족한 노동시장 경험 및 경력단절로 인한 비정규직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요약해 보면 여성의 근로빈곤화는 여성의 취약한 노동시장 경험과 지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재생산노동의 집중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여성들에게 유급노동을 통한 빈곤의 탈출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방법일 수밖에 없으며 취업 역시 여성집중 직종인 단순노무직 등 하위직종에 집중되고 이 직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성들을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가사 및 육아 등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이들의 이중 근로 부담은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정책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근로빈곤을 논의함에 있어서 여성의 삶과 생활을 이해하지 않는 접근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II.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특성

일반적인 빈곤의 측정을 위하여 경제적 결핍으로 한정한 ‘소득수준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상태’인 빈곤선 개념을 적용한다.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준절대빈곤선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정진호 외, 2005).

가구단위의 측정이 여성 빈곤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대표되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가능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가구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절대빈곤율이 7.9%인데 반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2.7%,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3.5%에 달한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절대다수가 여성 노인가구라 할 때 여성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상대빈곤율을 비교해 보아도 전체 가구 8.1%에 비하여 여성가구주 가구의 14.6%가 빈곤가구이며 노인가구주 가구의 38.8%가 빈곤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상균 외, 2005). 협의의 개념으로 측정한 빈곤집단 중 여성비율이 전술한 바와 같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인 사회적 배제 등을 적용시킬 경우 여성 빈곤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빈곤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어 근로를 규정하는 개념은 지난 1주일간 평균 18시간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성 근로빈곤집단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로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집단을 여성 근로빈곤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인구학적 프로파일 등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취업자 중 빈곤한 집단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취업자 중 빈곤집단의 분포

(단위 : %)

	총취업자	빈곤	차상위	비빈곤
남성	100	8.02	3.29	88.69
여성	100	10.15	3.42	86.44
전체	100	8.88	3.34	87.7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총취업자 중 남녀의 빈곤집단은 여성 10.15%, 남성 8.02%로 여성의 빈곤비중이 높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남성 3.29%, 여성 3.42%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와 무관하게 빈곤집단의 여성비중도 높으나 근로집단 중에서도 여성은 빈곤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녀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46~50세, 41~45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유사한 연령분포를 보이고는 있으나 보다 젊은 연령대의 분포가 높아 전체적으로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의 빈곤비율 및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성과 유사하나 66세 이상의 고령자 빈곤율이 전연령대 중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1~64세의 비중도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차상위의 경우도 50대 후반을 기점으로 비중이 낮아지다가 60세 이후에는 다시 가파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0~45세 분포가 전체에 비하여 다소 높아 40대가 빈곤의 가장 주된 연령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차상위집단의 경우 30대 중반이 오히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젊은 세대의 빈곤화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빈곤집단의 학력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빈곤집단의 경우 고졸의 비중이 전체의 37.78%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이어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학력 순으로 나타나며, 초급대 이상자의 비중이 전체의 27% 이상에 달하여 고학력자의 빈곤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차상위집단의 경우 학력에 따른 분포가 오히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고졸에 이어 중졸학력 집단, 초졸학력 집단 순으로 나타난다. 유사하게 초급대졸 이상을 보면 21% 정도가 차상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성집단의 경우 근로빈곤 중 저학력집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성 역시 고졸집단의 빈곤비중이 높으나 중졸 이하 집단의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

<표 2> 전체 근로빈곤집단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빈곤층		차상위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16~20세	1.28	2.43	2.26	2.31	0.77	2.02
21~25세	7.43	6.16	4.01	9.28	4.01	11.91
26~30세	11.77	5.88	7.64	3.28	10.85	12.58
31~35세	9.27	5.17	10.50	3.76	14.12	10.35
36~40세	10.42	12.16	13.70	15.75	14.88	13.37
41~45세	13.61	14.38	17.39	15.38	15.63	16.02
46~50세	14.08	14.89	13.04	14.80	14.58	12.47
51~55세	9.37	6.31	8.74	12.37	9.69	9.07
56~60세	5.19	7.03	4.77	4.68	7.51	4.92
61~65세	5.63	10.60	8.56	7.93	4.28	3.78
66세 이상	11.95	15.00	9.40	10.48	3.69	3.49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표 3> 근로빈곤집단의 학력별 분포

(단위 : %)

	빈곤층		차상위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무학	3.69	15.47	2.90	6.27	0.83	3.57
초졸	14.77	23.34	12.65	25.44	7.27	13.33
중졸	16.53	16.20	20.88	22.15	10.89	14.52
고졸	37.78	32.97	41.63	33.95	38.97	34.89
초급대졸	8.13	4.32	9.95	6.82	10.85	13.38
대학졸	16.19	7.22	11.75	4.59	26.06	18.01
대학원졸	2.90	0.48	0.25	0.79	5.12	2.29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표 4> 근로빈곤집단의 혼인상태

(단위: %)

	빈곤층		차상위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미혼	23.18	12.26	15.02	15.09	20.19	25.25
유배우	74.91	68.01	80.96	63.07	78.27	66.42
사별·이혼	1.92	19.73	4.02	21.84	1.54	8.33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적으로 고학력집단의 비중은 1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고령자 집단의 평균학력이 매우 낮은 것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빈곤에는 혼인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근로빈곤층 여성 중 사별 및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비율은 무려 20%에 달한다. 그러나 남성은 이 비율이 약 2% 수준이며 차상위집단의 경우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22%에 달하는 것에 반하여 남성의 경우는 4% 수준에 그쳐 혼인상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별의 경우는 고령자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남녀 차이가 매우 큰 것의 원인은 오히려 이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커 이혼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빈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근로빈곤집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떤 업종 및 종사상 지위에서 근로빈곤집단의 분포가 높은가를 살펴보자. 총산업에서 가장 빈곤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등 1차산업 종사자이다. 전체 빈곤집단 중 이들 집단의 비중은 1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림어업 종사자 중 26%가 빈곤집단이다. 또한 빈곤집단 중 제조업이 약 17%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빈곤집단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종 종사자 비중이 높다.

여성 근로빈곤집단도 여전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 이어 개인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 종사자의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차상위집단의 경우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소매업,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차상위집단에서는 오히려 농림어업 등의 종사자보다 이들 업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 집단이 향후 빈곤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대표적으로 저임금에 고용지위가 불안한 집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빈곤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의 노동시장내 지위와 관련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빈곤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이는 자영업 부문

에서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의 고용지위상 고용주나 자영업자보다는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차상위계층에서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오히려 낮고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자영업자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이분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 집단의 비중이 높다. 또한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부문 종사자의 빈곤비율이 높아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곤집단 중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

<표 5> 근로빈곤집단의 업종별 분포

(단위 : %)

	빈 곤		차상위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15.60	21.09	10.88	10.69	5.78	6.73
제조업	15.65	18.08	17.82	17.76	22.03	16.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29	0.00	0.00	0.00	0.68	0.13
건설업	17.87	0.34	19.16	1.40	14.09	1.2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점업	14.90	12.43	12.99	20.63	14.09	17.65
숙박 및 음식점업	3.87	12.99	5.61	24.43	3.78	13.98
운수창고 및 통신업	7.03	1.49	9.90	0.75	9.21	2.17
금융 및 보험업	0.55	0.44	2.22	0.00	3.38	4.8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2.23	8.77	10.32	6.75	10.12	7.5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4	3.77	1.50	0.00	3.65	1.94
교육서비스업	2.11	5.21	2.11	2.68	4.79	12.8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	2.28	0.00	3.50	1.33	5.16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7.87	13.10	7.49	11.42	7.04	9.01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표 6>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

		빈 곤		차상위		전 체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비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40.13	18.07	36.92	14.43	30.69	15.18
	무급가족종사자	2.00	20.92	2.24	14.72	1.19	15.87
임금근로자	상용직	30.65	31.78	34.04	37.50	55.06	50.57
	임시직	7.72	13.46	7.18	16.38	4.41	11.65
	일용직	19.50	15.77	19.63	16.97	8.66	6.74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표 7> 근로빈곤집단의 고용형태 분포¹⁾

(단위 : %)

	빈곤		차상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여성	39.35	54.33	36.07	51.39
남성	60.65	45.67	63.93	48.61
전체	100	100	100	100

주: 1) 노동패널자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실태와 더불어 응답자 개인이 본인을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본인이 스스로의 종사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정확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분석, 2006.

성근로자의 경우 빈곤집단과 차상위집단의 종사상 지위 분포가 상이한 것과는 달리 남성근로자의 경우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최근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더불어 근로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전체 근로빈곤집단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는 각각 46.2%와 53.8%로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상위집단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57.6%로 빈곤집단 중 비정규비중보다 오히려 높다. 이러한 정규와 비정규직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6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빈곤집단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상위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여 여성 차상위집단 중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66%에 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50.8%로 나타나 여성빈곤 및 차상위집단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앞서 여성 근로빈곤의 원인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집단을 성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과 노동시장내 상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근로빈곤집단의 노동시장 지위는 남성과 비교할 때 그리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총취업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집단 및 차상위집단의 비중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내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이다. 여성 고령자집단의 높은 근로빈곤 비율은 기대여명이 긴 여성 노인집단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또한 젊은 연령집단도 차상위집단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빈곤화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는 여성을 더욱 취약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성별 분업 속에서 사별이나 이혼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맞게 될 때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향후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재편 등은 여성 빈곤집단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여성취업을 제고하고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빈곤화 방지를 위하여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다수 업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높은 빈곤비율은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아 업종 및 종사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빈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면에서 여성들은 비정규직의 빈곤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 여성이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개인의 생산성보다는 사회의 구조,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규정된 여성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대상을 성과 무관한 근로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구조나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의 생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또한 빈곤정책이 가구중심 정책에서 개인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를 통한 빈곤의 탈출이라는 개념자체가 근로는 개인에 의하여, 빈곤의 탈출은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와 개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의 문제들이 야기된다. 물론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빈곤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별로 분리하지 않아도 여성들은 정책의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빈곤과 관련된 요인들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의 환경적 요인만을 변화시키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은 근로자 집단별로 상세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김상균 외(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박영란 외(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진호 외(2006),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6), 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원자료.